

독서능력인증시험

독서논술 침삭지도 예시(중등)

독서논술 탐색지도 예시

중등



대상도서

“중학생이 보는 홍길동전”

논제

신분 차별, 성별 차별 과연 옳바른 것이 었을까?

독서논술 작성 : 원주 ○○중학교 윤○○



학생이 작성한 글

성별 차별/신분 차별 등 요즘에는 많이 적어 졌지만 옛 조선시대의 신분과 성별의 차이는 심각 했다. 지금 내가 사는 곳이 만약 조선시대라고 해보자. 그렇다고 하면 난 어떤 차별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아야 했을까? 과연 지금 사회에서의 평등이 조선시대에도 이루어 졌었을까? 우리는 서로 다른 대우를 받아야 했을 것이다.

홍길동은 조선시대 판서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에게로 부터 태어났지만 그의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로 서자가 되야 했고,형인 인형이 장남이 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한 채, 가족의 곁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 무술을 연마하고 도적 때 를 거느려 남경 주변 섬에 있는 울도국이라는 나라를 점령해 스스로 왕이 되어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 갔다고 한다. 그런데 홍길동은 왜 도적을 거느리고 그 먼 울도국 까지 가야 했을까? 어쩌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탐관오리들의 행패와 안정되지 않은 나라에서 단 한 명의 위인이 나왔더라면 아마 홍길동은 울도국 까지 가지 않고 자신의 모국인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임금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살아 갈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좀처럼 가지지 않는 신분 차별이 오늘날의 모든 차별을 불러왔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도 소외받고, 차별받는 힘든 사람들을 우리는 못 본체 하고 그냥 넘어가 본적이 있었을 것이다. 장애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장애인, 그들에 대하여 생각해 본적이 있었는가? 우리는 옛 조선시대에서나 이루어지던 차별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자신이 장애인과 조금 경제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그저 물어만 두고 자신은 장애인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 대우 했으면서도,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마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대우 한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비장애인과 장애인, 부자와 거지, 우등생과 열등생, 높은직위와 낮은직위 를 상관하지 말고 사회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해야 된다.그렇지만 자기가 차별 받는 다고 생각하면 그 만큼 노력을 해야고 또한 다른 차별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교사 지도

◆ 대상 도서에 대한 분석력

'중학생이 보는 홍길동전'은 시대적 배경 속에 흐르고 있는 인간의 평등 사상과 봉건 제도의 모순 극복에 대한 열망을 함께 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윤○○ 학생은 글의 중심주제 논술에 접근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스럽습니다. 대상 도서를 차분히 잘 읽고 이해한 것을 현재의 삶들의 모습에다 비유할 줄 아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우선 대상도서를 끝까지 차분히 읽고 내용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이 독서논술의 가장 중요한 첫째 과제인데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 같아 많이 칭찬합니다.

◆ 창의적 사고력

책을 읽으면서 그 시대의 문제점을 하나씩 곰곰이 생각하고 왜 이래야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고 질문을 만들고 답하면서 사고력을 넓혀가는 모습이 선합니다. 자신은 차별대우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외치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란 점을 나무라고 자신부터 차별대우하는 일을 하지 말도록 해야겠다는 실천을 표명한 점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현시대의 좀처럼 가지지 않는 신분 차별이 오늘날의 모든 차별을 불러왔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를 좀더 밝히고 신분차별의 잔재를 타파하기 위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면 더 좋은 글이 되겠습니다.



교사 지도

◆ 문제 해결력

‘신분 차별, 성별 차별 과연 옳바른 것이었을까?’라는 논제를 풀어가면서 조선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현대 입장에서 바라보고 ‘난 어떤 차별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아야 했을까? 과연 지금 사회에서의 평등이 조선시대에도 이루어졌을까?’ 하고 문제에 대한 문제로 접근한 점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른 대우를 받아야 했을 것이다.’ 이라고 단정을 해놓고는 서로 다른 어떤 대우 상황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홍길동이 추구하고자 한 사상을 잘 분석하고 논제를 풀어가려고 했으나 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옳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정했는데 끝까지 구체적인 의견을 진술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 문장력 및 표현력

표현력은 논술의 기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나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글로써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표현력’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앞뒤 문장이 매끄러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글의 전체적인 구성은 체계적으로 잘 썼으나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이처럼 등 구체적인 연결이 흐릿한 말들을 쓰는 것은 자칫 글을 산만하게 하기 쉽습니다.



교사 지도

◆ 총평

간결한 문장으로 문제를 찾고 대안을 찾으려 한 점과 대상도서를 잘 읽고 분석한 점이 아주 훌륭한 논술입니다. 좀더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글을 자주 써 보고, 한 문장이라도 정확하게 써보는 연습과 한 문단을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큰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